

# 김정일 정권의 정치체제 : 비교적 시각\*

고병철

## 1. 들어가는 말

북한 정치체제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은 불굴의 회생력이다. 김일성의 사망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전국을 휩쓸었던 기록적인 식량 부족도 북한의 붕괴를 촉발시키지 못했다. 모든 정황은 1997년 10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지위에 공식적으로 취임한 김정일이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김일성 이후의 북한 정치체제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회생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인가? 그러한 특징은 김정일 체제를 그의 전임자로부터 분리시키는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 특히 중국과 쿠바 및 베트남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 2. 김정일 체제의 회생력

김정일 지배하의 북한의 다양한 구조적·행태적(또는 정책과 관련된) 현상

---

\* 본 논문의 원제는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Kim Jong Il : A Comparative Perspective”로서 1998년 5월 28~29일에 개최된 경남대 북한대학원 개원기념 국제학술회의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에서 발표되었다.

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즉 ① 최고지도자의 지배, ② 김일성과 그의 유산에 대한 신격화, ③ 군부의 우월권, ④ 여타 기구들의 상대적 쇠퇴, ⑤ 이데올로기적 사상 주입에의 지속적 의존, ⑥ 대외정책에서 강경 노선과 실용주의와의 혼합 등이 그것이다.

## 1) 최고지도자의 지배

북한 정치체제의 개념화에는 권위주의 국가,<sup>1)</sup>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국가,<sup>2)</sup> 전체주의 국가,<sup>3)</sup> 수령제,<sup>4)</sup> 유격대 국가<sup>5)</sup>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가운데 수령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최고지도자에 집중된 개인의 이상화가 그의 지배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북한에서 그것의 위대함은 정말로 놀랄 만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이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은 구 소련의 스탈린 이상화와 문화혁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모택동 이상화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북한에서의 이상화는 정도와 기간면에서 과거의 것들의 빛을 가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 치하의 북한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7월 이후 '최고지도자'가 지배하는 북한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존재해 왔다. 사망한 김일성과 그의 승계자 김정일이 모두 그러한 숭고한 지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에게 '수령'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김정일을 '령도자'로 지칭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령도자'에 붙는 '최고' 또는 '위대한'이라는 형용사 때문에 '수령'과 '령도자' 간의 차별성

1)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I : The Societ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1316.

2) Bruce Cumin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in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219.

3) Sung-Chul Yang, *The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s : A Comparative Analysis*(Boulder, CO : Westview Press, 1994).

4) 鐸木昌之, 『北朝鮮：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東京大學 出版會, 1992).

5) 和田春樹, 『北朝鮮：遊撃隊國家の現在』(東京：岩波書店, 1998).

은 특히 영어 번역에서 모호해진다.

1997년 10월 김일성 사망 3년3개월만에 김정일이 그의 부친의 사망과 동시에 공석이 된 두 개의 고위 직책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계승한 방식은 얼마만큼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정치체계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조선로동당 규약을 무시하고 북한정권은 10월 9일 방송된 ‘특별 보도’를 통해 조선로동당의 9개 도 당위원회와, 3개의 시 당위원회 및 주요 정부 기구와 조선인민군의 대표가 모인 일련의 집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의해 김정일이 그 직책을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1면과 2면에 걸친 특별 보도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것이었다.<sup>6)</sup>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총비서직 취임과 더불어 각종 사설과 연설에서 그를 찬양하는 횡수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조선인민군』의 1998년 1월 1일자 공동 사설에서 김정일은 27회, 김일성은 11회가 언급됨으로써 2.5대1의 비율로 나타났다.<sup>7)</sup>

하지만 이것은 김정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그의 아버지를 대신했다든가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김정일의 정통성이 김일성으로부터 나오는 한 그들은 당분간 북한의 정치 무대에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중앙 무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 2) 김일성과 그의 유산에 대한 신격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4년 7월 8일, 지난 46년간 북한을 통치해 온 김일성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신격화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김일성 우상화는 더욱 활발해졌다. 그가 집무했던 금수산 의사당은 방부

---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 『로동신문』, 1997년 10월 9일, 1~2쪽.

7)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1998년 1월 1일, 1쪽.

처리된 그의 시신이 안치됨으로써 ‘금수산 기념 궁전’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묘지가 되었다. 금수산 기념 궁전은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거쳐 김일성 사망 1주년인 1995년 7월 8일 공식적으로 개관하였는데, 1997년 그 앞을 1킬로미터 길이의 대리석으로 포장하였다. 그 밖에 수십 개의 김일성 기념 구조물들이 그의 사망 이후 3년 이내에 건축되었다. 그의 85회 생일인 1997년 4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은 85미터 높이의 기념비를 평양 순안 공항과 평양 시내의 4·25 인민문화궁전 사이의 도로 한가운데에 건설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통일원은 전체 건설비용이 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붕괴 직전의 취약한 경제 하의 나라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닐 수 없다.<sup>8)</sup>

무엇보다도 북한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김일성을 기념하기 위해 1997년 새로운 달력을 채택하였는데, 1997년은 주체86년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김일성의 86회 생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7년 9월 9일부터 북한의 모든 출판물들은 서기를 괄호 안에 넣어서 주체연호와 서기를 동시에 표기하였다.[예를 들어 주체86(1997)년 9월 9일 ; 주체87(1998)년 1월 1일]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의 정치적 충고와 정책 지도에서의 유훈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7년에 6권 분량의 『김일성저작집』이 출판되었는데 총50권 분량의 전집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sup>9)</sup> 대부분의 저술들이 망자(亡者)에 의해 씌어졌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비난받고 있는 김일

8) “북한, 정치 선전에 26억불 투입 김일성 사후 기념탑 등 건설”, 『조선일보』, 1997년 5월 16일 ; *Vantage Point*(Seoul), vol. xx, no. 6(June 1997), pp.14~16. 1997년 6월 북한은 GNP가 1988년 161억 달러에서 1995년 52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GNP가 869달러에서 239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외채는 1988년 39억 달러에서 1995년 76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UN에 보고했다. 북한이 이러한 통계를 보고한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 기구의 분담금으로 지불하는 액수를 축소하도록 UN을 설득시키는 데 있으므로 평양은 아마도 경제 쇠퇴의 정도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95년 북 GNP 52억 달러…1인당 GNP 239달러”, 『중앙일보』, 1997년 6월 23일자 참조.

9)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 『로동신문』, 1997년 4월 10일, 1쪽.

성의 자서전 제7권 『세기와 더불어』는 그가 죽은 지 3년 후인 1997년 7월에 출판되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시기에 자서전 두 권이 함께 출판되었다.<sup>10)</sup>

남한언론에 의해 ‘유훈통치’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과거 김일성 시대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김정일이 통치하지만 김일성이 군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일성의 시력이 저하되어 더 이상 읽기가 곤란해지기 시작한 김일성 정권의 쇠퇴기에 사실상의 권력 분열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부하들의 육성 보고와 더불어 김정일이 준비한 녹음 보고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김일성은 그의 아들이 사실상의 북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용했다.<sup>11)</sup> 1994년 1월, 김일성은 “우리 나라에서는 김정일 장군이 당과 국가와 군대의 모든 업무를 현명하게 지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계문제는 훌륭하게 해결되어 왔다”<sup>12)</sup>고 말했다.

첫번째 결혼에서 낳은 큰아들들 명백한 후계자로 지명하고 승계 계획의 점진적 수행을 확고히 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김일성이 만약 그의 ‘혁명적’ 전통이 그의 사후에도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기를 희망했다면 적어도 잠깐 동안은 그의 허황된 꿈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역에 내걸린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는 사실상 북한의 정치현실을 반영한다. 즉 상징적 차원에서 수많은 동상과 기념비를 통해 북한의 산하에 군림하면서, 그리고 수백만 북한주민의 감동의 원천으로 기능하면서 적어도

---

10) 『로동신문』, 1997년 7월 20일, 23일.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함께 출판된 두 권의 책 제목은 각각 『영생불사의 주체사상 창시』와 『항일 혁명의 역사적 승리』이다.

11) 사망하기 3개월 전에 1994년 평양에서 가진 Washington Times지와의 회견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시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정일이가) 모든 보고를 녹음해서 준비해 주므로 그것들을 일일이 읽는 시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만일 내가 지방에 가지 못하면 그가 나를 위해 내 비서에게 대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다.” *Washington Times*, April 19, 1994.

12) 『로동신문』, 1994년 1월 5일; B. C. Koh,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in North Korea” in Thomas H. Hen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Continuity or Change?*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University, 1997), p.2.

이론적으로나 계획적으로 김일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 3) 군부의 우월권

김일성 사망 이후 3년 넘게 김정일은 당과 국가의 최고 직책, 즉 조선로동당 총비서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직을 맡지 않고 북한을 통치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직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과 같은 군부의 최고 직책을 맡아왔다. 1995년 2월 오진우가 사망한 이후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유일한 구성원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그는 조선인민군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후 북한의 군부에서 그의 지도적 위치는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군부의 위상은 현저하게 부각되었다. 김정일이 군대와 관련한 행사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군부대를 자주 시찰함에 따라 그의 측근들 가운데 군부 인사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 두 명의 군 지도자가 특별히 주목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차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차수였다.

김정일은 1994년 7월부터 조선인민군의 상당수 고위 장교들을 진급시켰다. 1994년 10월에는 2명의 대장급(4성)이 원수급(5성)으로 진급되었다. 이들 두 사람, 즉 최광과 이을설은 이례적으로 김정일과 같은 급으로 진급되었다. 하지만 1997년 2월 최광의 사망으로 원수는 2명으로 줄었다. 1997년 4월에 김정일은 129명의 고급 장교를 진급시켰다. 여기에는 73명의 새로운 소장과 39명의 중장, 8명의 상장(3성), 5명의 대장, 4명의 차수가 포함되었다. 1998년 4월에 김정일은 다시 22명의 고위 장교들을 진급시켰는데, 여기에는 20명의 소장과 1명의 중장, 1명의 상장이 포함되었다. 1992년 12월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된 이후부터 모두 각각 6개의 직책에 922명의 장령(소장 이상)을 진급시켰다. 29명의 조선인민군 대장급 이상 장령(16명의 대장, 11명의 차수, 2명의 원수) 가운데 16명은 김정일이 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진급시

킨 것이다. 그리고 이들 29명에는 원수급을 차지한 김정일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sup>13)</sup>

기념석상의 참가 인원 명단이 언제나 그들의 권력 서열을 반영하는 나라에서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 첫 부분에 차수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은 군부의 부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된다. 그러나 1997년 말까지는 3명의 군부 지도자, 즉 1명의 원수와 2명의 차수만이 특별하게 부각되었다. 이 을설 원수와 조명록 차수, 그리고 김영춘 차수가 그들이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이 최고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특별 보도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명의로 발표되었다. 한편으로 이것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위원회와 동급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로동당 규약상 중앙군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부속 기관이다. 1998년 1월 1일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대신한 공동 사설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의 기관지에 실렸다. 사실 공동 사설은 1995년 1월 1일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이후 매년 1월 1일에 계속 실렸다. 하지만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공동 사설은 3개의 신문, 즉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관지에 실렸다. 김일성 사후 매년 신년 사설의 필자가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조선인민군의 기관지라는 사실은 북한에서 군부의 위상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된다.

김정일 정권은 사실상 군부의 부상을 인정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창군 65주년을 기념하는 『로동신문』 사설은 “인민군의 지위와 역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가 힘있게 이끄는 오늘날 전례 없이 탁월하게 상승하였다”라고 기술하였다. 이 사설은 북한에서 인민군은 인민과 국가 및 당과 동의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또한 인민군은 김일성이 살아 있었을 때부터 김정일과 염원과 목표를 같이했기 때문에 김일성 서거 이후에도 김정일을 호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김정일을 최고지도자로 받드는 것은 ‘무한한 영광’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65년 역사의 인민군 최고의 업적’이라고 주장했다.<sup>14)</sup>

13) *Vantage Point*(Seoul), vol. XX, no. 11(November 1997), p.8 and vol. XX, no. 12 (December 1997), p.10 ; 『조선일보』, 1998년 4월 14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차수는 김정일만이 유일하게 군과 인민과 국가와 당을 통일시키는 사상을 처음으로 해석해 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군중시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김정일이 고안해 낸 것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김영춘에 따르면 김정일은 ‘전군의 주체사상화’ 선전을 시작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한다.<sup>15)</sup>

1997년 10월 당의 최고위직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계속해서 군부 내에서의 최우선권을 유지했다. 군부대를 시찰하며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밖의 공식석상에의 참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군부 지도자들이 북한의 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매체들은 변함없이 김정일의 모든 공식 활동들을 신문의 전면 표제로 커다란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 4) 여타 기구들의 상대적 쇠퇴

조선인민군이 가장 강력하고 현저한 기구로 부각됨에 따라 김정일 정권하의 다른 기구들은 대중들의 관심에서 거의 사라져갔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형식적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가 김일성 사후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995년 4월 22일에 5년 임기의 제9기 최고인민회의가 공식적으로 폐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최고인민회의를 위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혼란 속에서 4년 동안이나 최고인민회의가 전년도 결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신년 예산을 승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능들이 다른 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필요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없는 것이라는 말이 예산 수립까지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단된 것은 공개적으로 승인된 전년도 및 차기년도

14) “당의 위업 수행에서 인민 군대는 항상 강력한 주력군으로 영광을 떨칠 것이다”, 『로동신문』 사설, 1997년 4월 25일, 4쪽.

15) 김영춘은 이러한 표현을 김정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기념하는 집회 연설에서 말했다. 『로동신문』, 1997년 4월 10일, 2쪽.



국가 예산 수립을 공식화하는 것뿐이다.

물론 최고인민회의가 마후에서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요 행사를 항상 공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조선로동당의 대규모 간부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보도하지 않았다.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비롯한 모든 매체들은 회의가 열리는 동안 간접적인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1월 28일 조선로동당의 보도기구는 김정일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금년을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전환의 해로 만들자”라는 ‘역사적 서한’을 보내왔다고 보도했다.<sup>16)</sup> 같은 날 평양의 조선중앙방송국도 이 회의에 대한 15분 분량의 보도를 방송했다.<sup>17)</sup>

전국에서 모인 1만 명의 당 간부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혁신을 고무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 경제 계획에 있어서의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3,22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는 그 전에 개최된 당 간부 모임과 비교하여 3대1의 비율로서 대규모 회의였다. 김정일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당과 군의 최고지도자들 상당수도 참석하지 않았다.<sup>18)</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1994년 7월 이후 전원 회의를 개최했다면 아마도 비공개로 열렸을 것이다. 중앙위원회가 계속해서 일상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1995년 5월 『로동신문』은 10월 10일 당 창건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구호를 발표했다.<sup>19)</sup> 1998년 4월에는 『로동신문』에 9월 9일의 정부 창건일 50주년을 알리는 구호들이 실렸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 구호들 역시 당 중앙위원회가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sup>20)</sup>

---

16) 『로동신문』, 1997년 1월 28일, 1쪽, 3쪽.

17) “10,000 Party Cadres Gather in Four-day Meeting : First Large Party Meeting Since Sixth Congress”, *Vantage Point*, vol. xx, no. 2(February 1997), pp.13~14.

18) *Ibid.*

19) 『로동신문』, 1995년 5월 1일, 1쪽.

대중적인 관심 밖으로 떨어져나간 또 다른 핵심 기구는 1972년 설립되어 소위 ‘초(超)대각’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이다. 지난 3년 동안 중앙인민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보도는 없었지만 그 명칭은 부고나 축하 전문, 성명서 등에 간간히 나오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가 결정한 정령들도 가끔 보도에 등장한다.<sup>21)</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도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1997년 7월 정부원 기관지 『민주조선』은 “정부원 확대 회의가 최근 개최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부총리들과 정부원과 중앙 및 지방 행정부 경제 부서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중앙정부 감독하의 공장과 사업소의 관리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이 회의의 주요 의제는 ‘식량문제 해결’이었고, ‘경공업과 금속공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 부문들’을 지속적으로 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sup>22)</sup>

최고인민회의를 제외한 이들 기구들, 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은 1995년 6월 12일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동지는 영원하다”는 집단 결정을 발표할 때 국방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도 함께 참석했으며,<sup>23)</sup> 1997년 2월 16일 김정일의 55회 생일을 기념하는 서한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의 공동명의로 작성되었다.<sup>24)</sup>

최근 몇 달간 급속하게 신뢰를 잃은 기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다. 1996년 1월 이 기구의 명칭이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뀐 것은 북한에서 이 기구의 특별한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995년 1월 1일 이 기구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과 더불어 공동

20) 앞의 신문, 1998년 4월 20일.

21)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에 대한 사례를 위해서는 『로동신문』, 1998년 2월 7일, 1쪽 참조

22) “Session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Reported”, *Vantage Point*, vol. xx, no. 8(August 1997), p.22.

23) 『로동신문』, 1995년 6월 12일, 1쪽.

24) 앞의 신문, 1997년 2월 16일.

사설의 집필자로서 고유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설은 각각 3개 기구의 언론 매체에 동시에 실렸는데 당시 사로청의 언론 매체는 『로동청년』이었다. 청년동맹은 계속해서 1996년과 1997년의 공동 사설의 공동 집필 및 공동 편집에 참여했으며, 이 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라 언론 매체는 『청년전위』로 바뀌었다.<sup>25)</sup> 하지만 1998년 청년동맹은 공동 사설의 공동 집필진에서 빠져있었다. 더욱이 1998년 2월 북한이 ‘사회주의에로의 총행진을 위한 전국 청년회의’를 소집했을 때 청년동맹은 분명히 참석하지 않았다.<sup>26)</sup>

한때 총애를 구가하던 청년동맹의 행운이 반전되어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의문이다. 일본과 남한의 매체에 보도된 소문은 그러한 의혹에 약간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1997년 11월 일본의 교토통신은 북한을 방문하고 막 돌아온 북경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조선로동당의 간부급 18명이 공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다. 그 가운데에는 조선로동당 서열 26위에 올라 있는 76세의 당비서 서관허와 청년동맹의 지도급 위치에 있는 3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청년동맹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 3명은 외화를 벌기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남한의 기관에 매수되어 김정일 정권 전복을 임무로 하는 남한의 공작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록 동맹의 의장 최영해와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된 간부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처형되지는 않았다. 최영해는 항일 게릴라 투쟁 시절 김일성의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최현의 아들이다.<sup>27)</sup> 1998년 초 남한의 북풍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남한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가 북한의 관리들과 수많은 비밀 공작을 벌여왔다는 것이 폭로됨으로써 북한의 청년동맹 일꾼 매수와 관련한 시나리오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25) 1996년 1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청년동맹의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로동신문』, 1996년 1월 20일.

26) 앞의 신문, 1998년 2월 7일, 1쪽, 3쪽.

27) “북한농업담당비서 서관허 등 당 간부 18명 공개 총살”, 『조선일보』, 1997년 11월 7일.

## 5) 이데올로기적 사상 주입에의 지속적 의존

대내정책에서 김정일은 이데올로기적 사상 주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배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김정일은 그의 부친의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급을 가속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김일성 이상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이것이 그의 부친이 그를 후계자로 결정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sup>28)</sup>

김정일이 직접 저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김정일의 이름으로 출간된 저작이 그의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도덕적 자극’의 중요성을 신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을 동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사회의 주인인 노동 계급과 인민 대중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서 노동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치도덕적 자극’에 의존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이고 노동과 ‘인민의 머리에 남은 구시대의 사상’ 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물질적 자극’이 필요함을 인정했다.<sup>29)</sup>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할 때 김정일은 붕괴된 정부들에 의해 이루어진 수정주의 정책들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과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 지도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와 경제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무원칙하게 타협하는데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수정주의 정책의 결과로 사회

---

28) 鐸木昌之, 『北朝鮮』, 69~107쪽, 127~139쪽 등 도처; 井上周八, 『現代朝鮮と金正日書記』, 권순휘 옮김, 『현대조선과 김정일 비서』(평양: 건역사, 1983), 13~37쪽, 71~74쪽, 128~149쪽.

29)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18~229쪽.

가 점차 변질되어갔으며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개편’한다고 하면서 ‘다원주의’를 끌어들이으로써 사회주의의 변질 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sup>30)</sup>

김정일은 북한은 그러한 경로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3년간의 가뭄과 2년 연속된 호우를 포함한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촉발된 전국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 평양의 정치 용어집의 일부분이 된 주목할 만한 구절은 바로 ‘붉은기 사상’이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청년동맹이 1997년 1월 1일 기관지에 게재한 공동 사설은 “혁명의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의지가 붉은기 사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보위하고 끝내기 전에는 우리는 쉴 곳도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하였다.<sup>31)</sup>

경제적 어려움도 김정일 정권이 주민의 사상적 의식을 고양하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하며 경제건설에 대한 노력 배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각계 각층의 군중이 참여하는 정치 집회와 각종 집단의 모임들을 후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1996년과 1997년에 그러한 집회와 모임들은 평균 한 달에 두 차례로 열렸다. 1998년 1월에 ‘전국 자력갱생 모범일꾼 대회’가 평양에서 이틀간 열렸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순수하게 자력으로만 상품을 생산하고 기능하는 단위들의 ‘모범 노동자와 혁신가들’과 중앙 기구의 간부들 및 시·군 및 국영 기업체의 당 일꾼들과 기타 공장, 기업체, 협동농장의 근로자들이었다. 당 기구의 책임 비서들과 가장 성공적인 공장과 기업체 및 그 밖의 단위들의 지배인들은 그들의 경험을 보고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 다른 단위들도 그것을 모방하고 나아가 그것을 능가할 것을 바라

30)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

31)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내자”, 『로동신문』, 1997년 1월 1일, 1쪽. 이 사설에서 ‘붉은기’와 ‘붉은기 사상’이 주체와 주체사상보다 더 많이 언급되었다. 붉은기는 다섯 차례 언급되었고, 붉은기 사상은 여섯 차례 언급된 반면, 주체는 4차례, 주체사상은 단 한 차례만이 언급되었다.

는 마음으로 그러한 성공 사례를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급하는 것이 김정일 정권의 분명한 목표였다.<sup>32)</sup>

또한 김정일의 논문들은 수 차례 출판되어 정치 학습과 실천 지침의 교재로써 보급되었다. 그 중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김정일은 1996년 7월 26일에 조선로동당의 이론적 잡지인 『근로자』에 “주체사상은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김정일은 1997년 6월 19일자 『로동신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라는 글을 기고했다.<sup>33)</sup>

## 6) 대외정책에서 강경 노선과 실용주의와의 혼합

북한의 대내정책에서 대외정책으로 논의를 전환시키면 상황은 약간 바뀐다. 즉 김정일 정권이 실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이이자 제약요인을 반영하는 강경 노선에 의해 속도가 늦추어진다. 미국과 일본 및 남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 마지못해 타협을 수용하는 전술인 ‘벼랑끝 전술’을 종종 구사했다.

이러한 전술은 김정일 정권이 들어선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외교 정책 수행이라고 여겨졌으며, 양자간 핵 합의를 산출한 1994년 10월의 제네바 미국-북한간 고위급 회담에서 잘 나타났다. 최후의 순간에 합의하는 북한의 전술은 또

---

32) 『로동신문』, 1998년 1월 30일, 31일.

33)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로동신문』, 1997년 6월 21일, 1~3쪽. 북한에서 출판되고 정치학습의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김정일의 다른 저작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영원토록 공경하고 그의 위대한 혁명적 과업을 완성시키자”라는 제목으로 1996년 10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대표 일꾼’들에게 한 연설과, 1996년 10월 1일 김일성대학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전달한 장문의 편지, 1997년 8월 4일 발표한 “민족혁명에 대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수행하자”는 제목의 논문, 그리고 1997년 10월 12일 만경대 혁명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전달한 편지 등이다. 『통일신보』, 1996년 11월 30일, 1~2쪽; 『로동신문』, 1997년 8월 20일, 1~2쪽, 1997년 10월 13일 1~2쪽.

한 1997년 11월과 1998년 1, 2월에 있었던 북한 국적의 일본인 처들의 고향 방문을 가능케 했다.

강경 노선과 실용주의와의 혼합이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에서만큼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은 없다. 1995년 여름 김영삼 정부에게 쌀 지원을 요청한 북한의 갑작스런 요구가 사상(또는 적대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의 승리를 보여준 것이라면, 북한의 후속 대응은 강경 노선과 업무에서의 체제적 제약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한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15만 톤의 쌀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감사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쌀 운반과 관련해 남한의 호의와 관용에 찬물을 끼얹는 두 가지의 사건을 초래했다. 그것은 여기에 인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굳이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북한은 쌀을 청진항까지 운반하는 최초의 남한 선박에 인공기를 게양하게끔 강요하였으며, 그 후 또 다른 선박이 같은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에 선원 한 명이 허가 없이 항구를 사진으로 찍었다는 이유로 전체 선원을 억류했다.<sup>34)</sup>

북한의 경제 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들어선 남한의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실용주의적 조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회담은 단지 그러한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에 새로이 들어선 각각의 정권간의 최초의 공식 대화인 실무 접촉은 실용주의에 대한 북한의 능력과 수용 의지에 여전히 깊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미 두 차례의 회담이 개최된 바 있는 4자회담이 수개월 내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평양의 대외정책에서의 강경 노선과 실용주의간의 상호작용에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주한 미군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지는 북한의 주장은 강경 노선의 증거다. 북한과 미국간의 쌍무 평화협정만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오랜 입장에서 북한은 결코 후퇴하지 않았다. 요컨대 4자회담이 결렬되지만 없었다면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인 회담으로

3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B. C. Koh, "South Korea in 1995: Tremors of Transition", *Asian Survey*, vol. xxxvi, no. 1(January 1996), p.58을 참조.

정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 3. 연속성과 변화: 김일성 시대와의 비교

앞에서 논의된 것들은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 정치체제가 김정일 시대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최고지도자의 지배, 개인 우상숭배, 군림과 통치의 분리, 사상적 지배의 현저화, 대외정책에서의 강경 노선과 실용주의의 혼합 등은 두 기간 사이의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는 단지 다음 3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군부의 우월성, 다른 국가 기구들의 상대적 쇠퇴, 김일성의 정통성을 불러일으키는 유훈통치 등이다.

사상에 관한 것은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사상 주입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과연 연속성을 의미하는가? 북한에서 계속해서 선전되어온 사상의 내용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가? 붉은기 사상의 등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북한 통치 사상, 즉 주체사상이 김일성 사후의 북한에서 여전히 최고의 지위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서거한 위대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정통성이자 김정일의 정통성의 원천이다. 더욱이 언급된 바와 같이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선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었다. 그러므로 김정일의 정통성은 그의 부친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은 자기 자신의 정통성 기반을 수립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붉은기 사상은 아마도 그러한 필요성을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붉은기 사상이 보급되는 방법에서 놀랄 만한 측면은 그것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것은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전통적 혁명 사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것의 핵심 내용은 무



장 투쟁 또는 경제건설에서와 같이 무제한적인 인내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확고한 충성, 그리고 혁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이다.<sup>35)</sup>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로동신문』 사설과 기사가 붉은기 사상에 대한 예찬과 주체사상에 대한 칭송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6)</sup> 그러므로 북한은 조심스럽게 붉은기 사상이 보조적 기능을 가지도록 하면서 주체사상에 의한 통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붉은기 사상이 더욱 발전하든가 또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등장하든 간에 어떤 대안적 사상에 의해 주체사상이 대체되는 일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군부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결국 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부정적이다. 당 우위의 전통은 매우 뿌리깊은 것이어서 쉽게 약화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시대부터 이미 겸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군부의 모든 최고지도자들, 즉 조선인민군의 고위 장교들은 당원이며 계급과 직위가 높을수록 조선로동당의 핵심 기구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중요 기구들이 함께 거론될 때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보다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먼저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이름이나 기구의 명단은 언제나 권력 구조에서의 서열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 즉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사이에서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총비서직 취임을 살펴보면 깨끗이 해결된다. 그는 당의 수장일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최고

---

35) “붉은기 사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로동신문』, 1997년 2월 26일, 1쪽 사설.

36) 예를 들어 1997년에 붉은기 사상에 대한 두 편의 논설이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다. 위의 각주에 소개된 것 이외의 다른 하나는 5월 1일자 신문 1면에 실렸다. 주체사상에 대한 논설도 두 편이 실렸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자”, 1997년 4월 1일, 1쪽과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억세게 싸워 나가자”, 1997년 5월 25일, 1쪽.

사령관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할 바 없이 군부의 지도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겹직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두 개의 중추적 기구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이 당과 국가의 수반이었던 과거 정권 기간 중에 나타났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국기주석직까지 오르게 된다면 그는 그의 부친이 가졌던 직책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 4. 북한과 다른 공산국가들 : 비교

만약 위에 기술된 것들 간의 의미 있는 통시적인 비교가 차이(또는 변화)보다는 유사성(또는 연속성)을 낳는다면 대략적인 국가간 비교는 정반대의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즉, 김정일 치하의 북한 정치체제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극히 일부분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부각된 특징들의 대부분은 북한 고유의 특징들이다. 오늘날 공산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당 국가의 우위이다. 북한보다는 그 강도가 덜하게 나타나지만 최고지도자에 의한 지배라는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나라는 쿠바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교적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공통성 또는 유사성보다는 차이성이 두드러진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신격화는 유례가 없다. 단지 스탈린과 모택동만이 같은 부류에 속할 수 있겠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가족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조상을 신격화하지는 않았다. 호치민이 살아 있을 때에 그는 북베트남 인민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이미 구체화된 소련과 중국 및 북한에서의 개인 우상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피델 카스트로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그러한 개인 우상화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바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개인 우상화와 뗄 수 없이 엮어져 있는 현상인 왕조적 승계는 국제 공산주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소련이나 중국, 쿠바, 베트

남에서도 전혀 시도된 적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 잠재적 후계자마저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발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배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잣대를 가지고 본다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최고지도자에 의한 지배는 북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중국에서 덩소평도 북한 모델과 비슷했지만 그는 당이나 국가의 최고 지위에 오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달랐다. 덩소평의 후계자이며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라는 두 개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강택민도 역대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보여왔던 것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한 저명한 분석가에 따르면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 통치되어 왔고 네 개의 분리된 기능이 특징인 베트남은 북한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사실 베트남은 1997년 최고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1997년 12월 베트남 공산당의 총서기인 도모이가 자발적으로 퇴진하고 군의 총정치부 위원장인 레카피우 장군이 계승했다.<sup>37)</sup>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공산당의 제1서기와 국가평의회 의장(국가원수) 및 각료회의 의장(행정부 수반)을 겸직하고 있다.<sup>38)</sup> 그의 39년간의 통치는 근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의 하나이고, 아마도 공산 세계에서는 김일성의 기록 다음으로 오랜 기간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쿠바가 북한과 더불어 최고지도자의 지배를 공유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상대적 투명성과 북한식 개인숭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쿠바 정치와 사회에서의

---

37) Douglas Pike, "Vietnam in 1990 : The Last Picture Show", *Asian Survey*, vol. xxxi, no. 1(January 1991), pp.79~83 ; Mark Sidel, "Vietnam in 1997 : A Year of Challenges", *ibid.*, vol. xxxviii, no. 1(January 1998), pp.88~91.

38) "Cuba", *1997 World Fact Book*(Washington, DC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97), <http://www.odci.gov/cia/publications/factbook/cu.html>. ; "Cuba" in Paul B Goodwin, Jr. ed., *Global Studies : Latin America*(Guilford, CN : Dushkin/McGraw-Hill, 1998), pp.114~117.

카스트로 지배가 북한의 김정일 지배 앞에서는 무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9)</sup>

북한의 대내 부문에서 강경 노선의 고수와 사상적 주입에의 지속적 의존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미미하게나마 잔재를 찾아볼 수는 있다. 비록 중국과 쿠바 및 베트남에서 강압적 지배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북한에서처럼 그렇게 널리 퍼져 있거나 위협적이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들은 경제정책에서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들 나라에서는 통제 기제와 생산 독려의 유인책으로서 사상 주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대외정책에서도 이들 3개 공산국가는 북한보다도 훨씬 강도가 큰 실용주의를 보이고 있다. 쿠바에서의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그들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과의 관계를 계속 증진시키고 있다. 한때 대만과 티벳, 인권문제 등으로 경색되어 있었던 중미관계는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1997년 10월 강택민의 미국 공식 방문의 답례로 1998년 6월에 빌 클린턴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이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 이후 최초의 공식 방문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sup>40)</sup>

요약하자면 김정일 지배하의 북한 정치체제와 다른 공산주의 국가를 비교하는 것은 김일성 지배하에서의 북한체제만큼이나 전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진부한 표현으로 여겨질지라도 김정일 치하의 북한은 오직 단 하나의 정치체제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 치하의 북한이다.

---

39) Tony Mendoza, "Cuba Today : Instant Antiquity" in Goodwin, ed., *Global Studies : Latin America*, pp.208~209.

40) Avery Godlstein, "China in 1997 : A Year of Transitions", *Asian Survey*, vol. xxxviii, no. 1(January 1998), pp.45~48.

## 5. 맺음말

여기서는 이 논문의 핵심 주제를 요약하기보다는 북한 경험의 함의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은 특정한 조건하에서 한 개인이 온 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고, 심지어 그의 지배 밖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분명한 확증을 제시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정을 입증하는 사례들은 스탈린이나 히틀러 또는 모택동처럼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재앙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세 명의 지도자들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김일성의 유산은 그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만들고 주화화하는 것을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비롯해 남한에서도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는 데에도 충분한 것이다.

북한에서 수령제의 등장은 정치 구조 형성에서 문화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필자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 우상화의 등장과 유지 및 강화는 3개의 주요 행위자, 즉 김일성 자신과 그의 동지들 및 인민 대중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관계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방정식에 적용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것은 문화이다. 또한 권력의 역동성 그 자체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규범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강제적 권력은 지도자 지배하의 정치체제를 영속화시킬 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sup>41)</sup>

강력한 적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북한 정치체제의 회생력은 대내적 환경과 대외적 환경의 우연한 조화에 기인한다. 대내적으로 핵카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북한의 능력은 놀랄만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외적으로 워싱턴 외교정책의 최우선 의제로서 핵 비확산이 등장한 것과, 양보를 이끌어내는 미국의 의지, 그리고 제네바에서

---

41) B.C. Koh, "The Cult of Personality and the Succession Issue" in C. I. Eugene Kim and B. C. Koh, eds., *Journey to North Korea : Personal Perceptions*(Berkeley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3), pp.32~34.

결의된 타협안을 받아들일도록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 등이 북한에게 생명선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구조적 취약성과 연속적인 정책 실패와 더불어 자연 재해가 북한을 기근의 심연으로 몰아갈 때 국제 사회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은 그것의 탈출구가 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았는가? 수년 동안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이 배운 것은 어느 것도 평양의 수수께끼 같은 정권이 수개월 또는 수년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주 동안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만큼 무모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불투명한 북한정권 가운데에서 그나마 투명하게 보이는 단 한 가지는 그 어떤 정권들보다도 생존을 위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일 정권은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실용주의적 타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 대외정책, 특히 남한과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강경 노선과 실용주의를 혼합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자신의 정책만큼이나 상대 국가들의 정책에 의존하게끔 북한의 대외정책이 전환된다면 대내정책에서의 변화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997년 말 남한에서 터져 나온 경제 위기는 남한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에 있어 어찌면 잘된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회유적 논조와 더불어 그것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획기적 개선은 또한 북한의 대내적 상황의 전환이 진행되는 씨앗이 될 것이다. 물론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지만 변화가 시작되는 기회는 점점 무르익어간다.

## 참고문헌

김정일,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사회주의전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鐸木昌之, 『北朝鮮 :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 : 東京大學 出版會, 1992).
- 井上周八, 『現代朝鮮と金正日書記』, 권순휘 옮김, 『현대조선과 김정일비서』(평양 : 건역사, 1983).
- “10,000 Party Cadres Gather in Four-day Meeting : First Large Party Meeting Since Sixth Congress”, *Vantage Point*, vol. xx, no. 2(February 1997).
- Cumings, Bruce,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in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Godstein, Avery, “China in 1997 : A Year of Transitions”, *Asian Survey*, vol. xxxviii, no. 1(January 1998).
- Goodwin, Paul B., Jr. ed., *Global Studies : Latin America*(Guilford, CN : Dushkin/McGraw-Hill, 1998).
- Koh, B. C.,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in North Korea” in Thomas H. Henriksen and Jongryn Mo, eds.,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 Continuity or Change?*(Stanford :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University, 1997).
- \_\_\_\_\_, “South Korea in 1995 : Tremors of Transition”, *Asian Survey*, vol. xxxvi, no. 1(January 1996).
- \_\_\_\_\_, “The Cult of Personality and the Succession Issue” in C. I. Eugene Kim and B. C. Koh, eds., *Journey to North Korea : Personal Perceptions* (Berkeley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3).
- Mendoza, Tony, “Cuba Today : Instant Antiquity” in Goodwin (ed.), *Global Studies : Latin America*.
- Pike, Douglas, “Vietnam in 1990 : The Last Picture Show”, *Asian Survey*, vol. xxxi, no. 1(January 1991).
- Scalapino, Robert A.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I : The Society*(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Sidel, Mark, “Vietnam in 1997 : A Year of Challenges”, *Asian Survey*, vol. xxxviii, no. 1(January 1998).

Yang, Sung Chul, *The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s : A Comparative Analysis*(Boulder, CO : Westview Press, 1994).

*Vantage Point*(Seoul), vol. XX, no. 11(November 1997), no. 12(December 1997), no. 6(June 1997).

*Washington Times*, April 19, 1994.

*1997 World Fact Book*(Washington, DC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97).

“Session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Reported”, *Vantage Point*, vol. xx, no. 8 (August 1997).

『로동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Abstract〉

##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Kim Jong Il : A Comparative Perspective

*Koh Byung Chul* (University of Illinois, Political Science)

The most silent structural and behavioral manifestation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Kim Jong Il include 1) the dominance of the supreme leader, 2) the apotheosis of Kim Il Sung and his legacy, 3) the ascendancy of the military, 4) the relative decline in the blending of the hard-line and pragmatism in external policy.

This means that the Kim Jong Il system is only marginally different from its predecessor. The dominance of the supreme leader, the cult of personality, the dichotomy between reigning and ruling, the salience of ideology and the blending of the hard-line and pragmatism in external policy--all of these represent continuity, not change, between the Kim Il Sung and Kim Jong Il eras. Change can be discerned in three areas only : the ascendancy of invoking the legacy of Kim Il Sung.

When one turns from a diachronic to a cross-national comparison, one encounters a strikingly different situation. That is to say,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Kim Jong Il shares but a few traits with other communist states. There seems to be only one characteristic that is common to all of the surviving communist states today--the supremacy of the communist party. Another characteristic, the dominance of the supreme leader, is duplicated, albeit to a markedly lesser degree than in the North, in only one other country, namely, Cuba.

It is, then, the differences, not the commonalities or similarities, that stand out when one attempts to place the DPRK in a comparative context. The cult of personality practiced in the North is without parallel. Only the Stalin and Mao cults can be placed in the same league but neither of them was extended to family members, let alone ancestors. Dynastic succession in the North i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communism. The dominance of the supreme leader is not really duplicated in other communist states if we use the degree of dominance prevailing in the North as a yardstick. The persistence of a hard-line and the continuing reliance on ideological indoctrination in the North's domestic areas is faintly echoed in China, Cuba, and Vietnam. In external policy, too, all three communist countries display a greater degree of pragmatism than does North Korea.

In Sum,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Kim Jong Il is sui generis, just as its predecessor was. At the risk of sounding trite, one may state that North Korea under Kim Jong Il resembles only one other political system-North Korea under Kim Il Sung.